펄프종이기술이 만난 제지인

기업과 가정을 사랑과 정성으로 일군 60년

대양그룹 권혁홍 회장 · 이경자 수석부회장의 아름다운 동행

펄프종이기술은 창업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0년을 대양그룹과 함께한 권혁홍 회장님과 이경자 수석부회장님을 만났다. 권 회장님은 제지 및 포장업계의 대선배로서 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으로 활약하고 계시며, 이 수석부회장님은 유아교육전문가로서 유아교육 분야에 평생을 헌신하시면서, 가정, 사회봉사, 예술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탁월한 본을 보여 오셨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으로 봉사하시기도 하면서, 제4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한글특선 등 한글 서예가로서 활약하셨다. 이러한 공로로 제 55, 56, 57대 사임당으로 추대받으셨으며,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펄프종이기술은 사업과 가정을 하나같은 사랑과 정성으로 이끌어오신 두 분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으로 가득한 보람찬 삶의 의미를 전하게 되었다.

펄프종이기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권 회장님은 지난번에 한번 뵈었는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수석부회장님께서는 처음으로 우리 펄프종이기술을 통해 학회 회원들과 인사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권혁홍: 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 학회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방문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 지난번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수석부회장과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되어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자: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 회사를 방문하셨을 때 잠깐 인사만 드려서 죄송했었는데 이렇게 학회의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펄프종이기술: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수석부회장님의 활약상을 보니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던데요. 유아교육의 전문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으로 봉사하셨고, 한글 서예가로 국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경력, 각종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너무 다방면에 다양한 활약을 하고 계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도 눈꽃 이음장학금을 쾌척하시기도 했던데요.

이경자: 글쎄요.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살다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마지막 말씀하신 서울대 장학금은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에서 공부하였기에 그 고마움을 전하는 의미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외손녀가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공부하게 되어서 각별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펄프종이기술: 수석부회장님도 바쁘시지만 권 회장님은 요즘 들어 더욱 분주해 지시는 것 같습니다.

권혁홍: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여개의 제지 및 골판지상자 회사로 수직계열화를 이뤘고, 산업용 포장지 수요는 꾸준한 거 같아서 사업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거 같습니다. 특히 임직원 여러분이 합심해서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몇 가지 일을 더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여러 일과 행사 등으로 일정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사업관련 업무야 업체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 기본원리나 경영원리는 모두 같기 때문에 크게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을뿐더러, 모든 임직원이 회사를 위하는 길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협심해서 잘 해주고 계셔서 진행이 수월하지만, 대종회 모임은 회사와 같은 위계질서보다는 몇 대손이냐 하는 항렬이 우선인 조직이고, 또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지닌 분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의견을 결정하는데 더욱 신중해야만 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나이도 85세가 넘어서 일을 줄여야만 하는 때인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 떠밀려서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서 걱정입니다.

펄프종이기술: 연세가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맡으시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만....

"열심과 신용이 대양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권혁홍: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30년 배우고, 30년 일한다고 하는데, 저는 60년을 일하고 있으니 벌써 2배를 일했으니 좀 쉬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양그룹을 시작한지도 벌써 60년이 가까이 되고 있으니 참 세월이 빠르긴 빠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형님께서 골판지를 팔아보라는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니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초기에 장사를 할 때는 새벽 3시반이나 4시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 8시반까지 일하곤 했습니다. 평균 하루 약 15시간씩 일한 것 같네요. 대학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 잠깐 참석하여 출석 체크하고, 다시 가게로 와서 장사를 하곤 했습니다. 당시 방산시장에 가게가 있었는데 종이장사라는 것이 마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초기에는 항상 자금이 문제인데, 초창기 잘 견딘 것은 남에게 빌린 돈은 약속한 날에 꼭 갚아야한다는 생각을 항상

지니고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자: 회장님은 정말 일만하시면서 사셨어요. 언젠가는 "하루가 24시간이다. 나는 남들이 일하는 8시간 일했고, 노는 8시간에도 일했고, 자는 시간 꿈속에서도 일을 했다"고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학생 사장 시절 주위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학생 사장을 기특하게 보시는 분이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신용을 지키셨다는 일화도 여럿 생각이 납니다. 이런 신뢰와 정직성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가 되면 무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꼭 지키셨습니다. 헛약속을 하신 적은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신뢰는 백점이지만 재미는 좀 없으시기도 하죠.

펄프종이기술: 일하시는 과정에서 힘든 시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번 안양 수해에 관한 일화는 권 회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이경자: 안양에 수해가 있던 날 회장님께서 집에 오시더니 안양천 홍수가 가져온 엄청난 피해로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내려 앉았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해복구를 위해 자금 지원을 하라고 조치를 해 주셔서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후 공장을 다시 가동할 때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홍수 범람으로 인한 진흙들이 기계 속으로 모두 들어가서 기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해요. 다시 시작하게 될 때 공장에서 앞으로 잘 되길 기원하며 고사를 지내던 생각이 납니다. 고사를 지내면서 박대통령께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지요.
또 하나, 최근에 대양제지에서 화재가 난지 벌써 6년이 되네요. 회장님께서는 내 손으로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화재가 나서 회사가 어지러운 와중에서도 산업에 원지수급이 문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경쟁사에게 생산을 충분히 해서 원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부탁하시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간 재건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 덕분에 업계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님 뜻하시는 대로 동종업계 전체를 위해 좋은 일 하신거란 생각도 듭니다.

펄프종이기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셨으니 집안일은 온전히 수석부회장님이 챙기셨을 것 같네요.

"자나 깨나 회사 일에 몰두한 나날이었습니다."

권혁홍: 그렇죠. 저는 정말 다른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이 지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책도 읽을 겨를이 없었어요. 일하기도 바쁜데 한가하게 책을 읽을 여유도 없었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생각만 가득했으니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유가 없었답니다. 어떤 때는 회사 일을 가지고 고민,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동안 했던 고민이 아무 일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했던 고민이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도움이 되었어요.
집안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자식 교육인데 우리 아들과 딸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잘 졸업했으니 대견합니다. 저는 서울대가 수업료도 싸고 해서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집안일을 아내에게 모두 맡기고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자: 애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성실하게 커주어서 고맙죠. 모두 정말 착하고, 우애있게 자랐을 뿐 아니라 학교 공부도 잘해 주어 고마웠어요. 우리 애들이 2남1녀 세 명인데 그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운동이 한창이었죠. 국가 시책을 따르지 않아 항상 세 자녀를 둔 엄마라서 밝히기를 꺼려했던 기억도 있네요. 하지만 모두 제 몫을 잘 해줘서 감사하죠.

펄프종이기술: 회장님의 내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셨을 거 같은데요.

이경자: 저는 회장님의 형님께서 중매를 서셔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제가 6남매의 맏딸인데 친정아버님께서 시댁 어른들을 만나 뵙고 오시더니 회장님이 정말 건실하고 맑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하게 되니 저에게 아버지께서 "매일 최선을 다해라.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으실 텐데, 남편과 시댁에 정말 최선을 다해라"고 항상 말씀하시곤 했어요. 또 "동창회 같은데도 나가지 말라"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에서 신혼살림을 하고 살았는데 대방동에 있는 친정집에 명절 때고 제삿날이고 가지를 못했어요.
결혼 초기에 회사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있으면 밤에 집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초기에는 즉각 알려드려야 되는 줄 알고 알려드렸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 통행금지가 있던 때라 밤에 알려드려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낮에 고생하셨으니 밤잠이라도 편히 주무셔야 다음날 최선을 다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즉각 알려드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역정을 내셨지만, 알려드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는 별말씀을 안 하셨어요. 결국은 이것이 건강하게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지금 생각해 봐도 제지업은 24시간 항상 생산이 이루어지고 해서 대표이사가 아플 수도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펄프종이기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내조하시니 수석부회장님께서는 사임당상을 제55대에서 56대, 57대까지 역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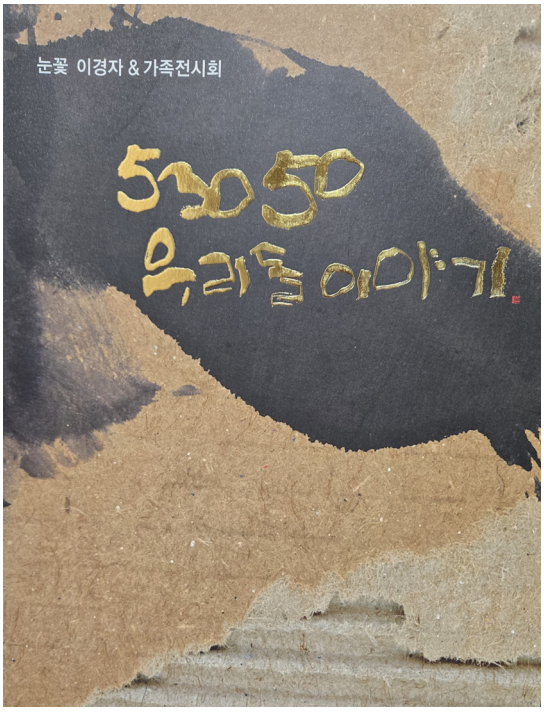
"권씨 가문의 좋은 가풍을 익힌 덕분에 사임당으로 3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이경자: 저는 권씨 가문으로 시집을 온 인연으로 좋은 가풍을 익혀서 사임당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사임당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선발하는데, 사임당으로 선발되려면 애들을 잘 성장시켜야 하고, 남편이 생존하고 계셔야 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여를 하고 있어야 하면서, 서예나 서화, 자수 등의 예술활동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 있어요. 저는 3년 동안 사임당으로 활동을 하고, 올해 저는 그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펄프종이기술: 3년을 못 뽑으신 것은 부회장님께서 선정기준을 너무 높혀 놓으셨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사임당으로 선정되려면 서화나 서예 등에 일가견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경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쓴 붓글씨를 학교 벽에다 걸어 놓고는 했죠. 대학에서는 유아교육학 박사와 경영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붓글씨와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습하곤 했죠. 제가 회장님 팔순 때 이걸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목이 "53050 우리들 이야기"에요. 저와 회장님의 결혼기념일이 5월 30일이거든요. 두 아들도 5월 30일날 결혼했어요. 딸은 시댁을 따라야 해서 같은 날 결혼하지는 않았는데, 외손녀의 출생 후 11년 만에 외손주가 5월 30일날 태어났어요. 정말 큰 우연의 일치고 인연이죠. 여기에 제가 그린 그림이랑 가족의 이야기 등을 담아 책을 만들었어요. 그림이랑 글씨도 저희 회사 제품인 골판지에다 그리고 썼답니다.



이것은 저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펄프종이기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작가로 활동하시는 전임작가님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부회장님 호가 눈꽃이시군요.

이경자: 네. 눈은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어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느낌이 좋아요. 회장님의 호는 안촌(安村)이에요. 저는 이 책에 그림이랑 가족의 얘기를 담았어요. 특히 회장님과 살아보니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겸손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잘 표현은 못하시지만 가슴에는 깊은 사랑과 정을 지닌 분이란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안동 권씨와 살아보니"라는 시도 지어서 넣어 보았어요.

펄프종이기술: 이런 행복 속에 사시는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임직원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는 기업,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꿈입니다."

권혁홍: 그러게요. 제가 회사 창립 5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대양그룹은 사람과 환경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룹의 핵

심가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양그룹은 임직원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는 기업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 가정이 행복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삶도 풍요로와 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임직원의 행복을 위하는 회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 크게 공헌하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업을 2세에게 잘 승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아들과 딸이 회사에 나와 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가업을 이어받고자 하고 있으니 행복합니다. 더욱이 자식들이 50세 정도 되었으니 저로서는 할만큼 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더욱 회사를 잘 키워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회장님께서 업계 후배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있으신지요?

권혁홍: 항상 잊지 않으려 하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지켜온 업계와 직원과의 상생의 철학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상여금을 반납하며 회사를 지켜준 직원들이 있었고 위기를 극복한 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보답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전통이 대양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이윤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계와 직원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신용과 성실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다음 세대 경영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회장님을 뵈면 사업가답지 않게 조용하시고 순수한 면이 있으신 듯합니다. 수석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 회장님의 어떤 면이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자로서 오랫동안 애써 오신 수석부회장님의 시각이라 더욱 궁금합니다.

이경자: 교육자인 저조차 회장님의 직원 성장에 대한 열정에 놀란 적이 많습니다. 늘 직원의 교육과 발전에 큰 기대를 거시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직원이 있으면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지원해 주십니다. 지금 회사의 핵심인력 중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해 근무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별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인의 잠재력을 믿고 학업을 지원하시며, 직원 자녀 학자금도 어느 곳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이런 회사의 철학이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회장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낮은 직급의 직원부터 먼저 살피시고 소소한 개인사까지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가족을 대하는 듯합니다. 이런 면모가 퇴직하신 직원분들까지도 회사 대소사에 여전히 참여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펄프종이기술: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회사의 목표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감, 자원선순환 구조 정립과 AI를 이용한 지능형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혁홍: 미래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환경과 AI전환이 다음 숙제입니다. 기업인으로서 제지업의 전 사이클을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사업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탄소 절감 및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어야 제지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져오고 백년 기업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AI 전환을 통한 지능형 생산체제에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뛰어난 인재역량을 경쟁력으로 성장했다면 AI 시대에는 AI경쟁력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경영인들이 저보다 이 분야에 지식이 높을 테고 그들이 가져올 미래의 산업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2023년에 유럽 공장 시찰을 다녀왔는데 현장 생산성에서는 우리나라 공장이 밀리지 않으나 데이터기반 자동생산체계가 잘 되어 있어 부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AI 발전을 목도하노라면 원가 품질 생산성에서 세계 최고의 제지공장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이 꿈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펄프종이기술: 행복한 두분을 뵙고 나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펄프종이공학회도 내년에 60주년을 맞게 됩니다. 60주년을 맞아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출판사업으로 제지공정공학이란 책을 집필해서 현장 기술인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전문서적을 발간해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양그룹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한국펄프종이공학회를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후배 제지인들을 위해서 더욱 대양그룹을 크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펄프종이기술 편집위원장 이학래